



2023년 12월 29일

49호

아프리카 카메룬

강창석, 이미숙 선교사

From West Africa Cameroun Douala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중에 내가 과수니라(답전 1:15)

교회이야기 1

도파시 교회 기쁜 성탄(Joyeux Noel):

보통 이곳 날씨는 섭씨 34도 이상이고 체감온도는 40도를 넘습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85% 이기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고 매일 땀과 먼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끔은 10시간씩 전기가 나가고, 연말에 1주일만 시내 정유소에 휘발유공급이 끊겨 수도 야운테와 지방 두알라의 대중교통인 택시와 오토바이 운행이 중단되며 도시가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감사히 이번 성탄절은 지난해 보다는 사하라 사막의 황사 모래가 적은 편인 것이 이상 기운으로 11월까지 비가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도파시 교회 어린이들이 성탄발표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찬양과 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의 장면을 연극으로 연출하면서 뜨거운 더위를 잊어버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후원으로 1년에 한번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빨랑땡 튀김, 닭튀김, 찌개란과 컵케익, 음료수와 피망(고추양념) 이 전부이지만 받아 들은 도시락을 들고 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해 합니다. 이 도시락은 온 식구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160여명의 어린이들과 200명의 어른들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교회이야기 2

고마(NGOMA) 교회 이야기:

코로나 이후에 교회 건축은 물가와 인건비가 오른 탓에 예상 경비가 더 들어갔지만 끌로비스 집사의 헌신과 베트랑 목사의 수고로 건축이 잘 진행중입니다. 노성교회의 후원으로 교회 대지를 구입했고, 우물을 뚫으며, 홍성교회의 후원으로 1층 사택, 2층 교회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께서 지혜를 주셔서 한번에 2가지 요구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일단은 발전기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고 현재 화장실을 완성하여 베트랑 목사 가족이 이사를 하였습니다. 아직도 내부적으로 해야 할 공사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의 모습만 봐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건축초반 사진과 현재 사진

교회이야기 3

에르뽀교회 이야기 : (경일노회 선교회 건축)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서 지금으로부터 27년전(1997년) 한국 경기도 김포에서 선교의 꿈을 갖고 33살의 나이에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김포시 연합회에서 만나고 아침마다 조기 축구 하다가 만난 김광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나이는 형이지만 친구처럼 다정하게 교제하셨습니다. 매일 만나 축구를 하다 보니 가족같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자주 베골교사는 김목사님의 품성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 선교사로 김포를 떠나 아프리카 카메룬에 왔지만, 언제 고 형제처럼 늘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목사님의 사랑으로 경일노회를 통해 두알라 공항근처의 작은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세라팡 목사는 이슬람 사역에 비전이 있어 모슬렘이 모여 사는 공항 근처 집을 얻어 마당에서 개척을 하였는데 동네의 필요를 살피다 방과후 공부방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을 위해 섬기는 이 교회를 눈여겨 본 마을 추장께서 도로 부근 작은 땅을 선물로 주어 교회를 지었는데 중고판자와 두드려 편 양철, 그것도 부족한 곳은 커튼으로 막아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아에르뽀교회가 경일노회의 헌금으로 벽돌로 깨끗하게 건축을 하게 되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세라팡 목사는 자기가 무슬림 지역의 동네에서 전도하면서 이슬람교도들의 "죽여 버리겠다"는 압박을 받으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중에 그는 실제로 칼로 찔림을 받고 손목이 베임을 당했습니다. 그 상처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매일 전도하고 방과 후에 이슬람 가정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전도하여 100여명이 넘는 지역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창립예배 12월 17일 /에르뽀교회 건축 전 사진

교회이야기 4

두알라 발리교회 (르호봇) 이야기: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발리교회 (현,르호봇)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12월 3일 창립기념예배(41년역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척하고 35년 만인 2017년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하였으나 2022년 5월 정부의 불법으로 교회가 철거되는 슬픈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살아 계시는 바로 예수님 이셨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환란과 시련속에서 더 강하고 성숙해졌습니다. 제가 없는 1년의 안식년동안 엄청 큰 시련이 왔는데 그들 스스로 잘 견디어 주었습니다. 약 6개월은 호텔의 회의실 (세미나 룸)을 빌려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님의 강권하심을 듣고 독봉(Ndogbog)지역으로 이주하여 땅을 임대해 건축을 하였습니다. 1년동안 성도들과 해외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헌금등 힘을 합해 약 3900만세파; 한화 8000만원)을 헌금하여 교회 창립 41주년에 새로 태어난 르호봇 교회 1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디우투스 목사는 "나는 죽었다가 깨어났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들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목사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기도 하시고, 교회건물이 철거되고 파괴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세우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홀로 반석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마16:16) 원근 각처에서 600명이 넘게 찾아와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감사 한 일들 : 2023년

2023년을 보내면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주일예배에 찬양과 설교가 기쁨 부음으로 넘쳤고, 매주 수요일 찬양이 새 힘을 주었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가 활성화되었고, 제자훈련반이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있던 가정들이 "이마고 대화법"를 통해 부부간에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베썸베 땅을 허락해 주셔서 9000평(3헥타)땅이 1차서류 문서를 받았습니다. 르호봇 교회와 에르뽀교회가 입당예배를 드리고 고마교회가 건축 중이며 도보교회가 전도의 열매가 많아 부흥하고 있습니다. 도파시 파트릭 목사가 B형간염에서 치료받았고, 내년에 결혼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3가정이 결혼식을 올렸고 12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파시교회에 많은 출생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많은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한국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역자님들 덕분입니다. 일일이 감사편지를 못 올려드려도 여러분의 생명 어린 기도와 후원금은 씨앗이 되어 열매 맺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2024 1월 기도제목 올립니다.

- ① 그리스도만 내세우며 겸손을 배우고 실천하는 선교사로 쓰임 받게
- ② 고마교회 (베트랑목사) 건축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되어 1월중 입당 가능 하기를
- ③ 기증받은 베썸베땅(3헥타르) : 요셉비전학교와 기도원, 수련회장이 잘 계획하도록 (특히 설계도면과 후원자들이 2024년에 일어나도록)
- ④ 두알라 VCP(교회개척팀)교육이 시작됩니다. 지원자들 10여명이 2년간 교육을 잘 마치도록
- ⑤ 3일간 (1/2-4일)도파시교회 70여명이 **신년 금식 성회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묵인 문제들이 풀려지고 돌파의 영성을 받아, 질병에서 병고침을 받고,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기적들을 경험하도록
- ⑥ 올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성찬이의 미국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 이미숙 선교사가 성찬이를 만나러 미국에 들어가는데 성찬이가 위로 받는 시간이 되기를 (2024년 1월 16일 -31일)